

회 의 록



회의명 :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장소 : 대학본부 대회의실

작성자: 강지우

일시 : 2026 년 4월 8일 (수요일)

1. 참석자: 재적 평의원 11명 중 9명 참석

염한웅 의장, 김철홍 평의원, 노준석 평의원, 정운룡 평의원, 강우진 평의원, 윤준하 평의원, 이성재 평의원, 안희철 평의원, 이창수 평의원(이상 9명)

* 불참(2명): 최명용 부의장, 윤건수 평의원

* 배석(8명): 송민석 기획처장, 이종봉 교무처장, 교무팀 조선희 팀장, 정예나, 정원경, 재무회계팀 손의락 팀장, 홍성원, 김지형, IT융합공학과 행정팀 신재성 팀장, 기획팀 황병숙 팀장(간사), 강지우

2. 안건

○ 심의 안건

- 제1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관련 학칙 개정안

○ 보고 안건

- 제1호: 2025학년도 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 제2호: 학과명(IT융합공학과)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안

3. 주요 내용

○ 대학평의원회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10기 대학원생 대표 평의원에 대한 의장(총장대리)의 평의원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에 의거, 간사의 성원 보고가 있었음.

⇒ 재적평의원 11명 중 출석평의원 9명으로 평의원 정수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제1호 심의 안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관련 학칙 개정안

○ 송민석 기획처장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음.

[심의 결과]

○ 참석평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관련 학칙 개정안'을 원안 승인함.

의 결 주 문

■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학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교육혁신센터, 상담센터, 스포츠지원센터, 포항공대신문사, 인권센터, 언어문화원 (개정: 2016.2.1.)(개정: 2020.9.1.)(개정: 2020.12.13.)(개정: 2025.4.17.) 2. 부설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인공지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미래IT융합연구원, 고분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뇌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 자동차기전연구소, 절강전통연구소, 절강제어연구원, 환경연구소, 항공재료연구원, 국방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특화연구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포스텍 포톤사이언스센터, POSTECH-Apple Developer Academy and Apple Manufacturing R&D Accelerator(PAA*) (개정: 2019.5.14.)(개정: 2020.2.16.)(개정: 2021.11.29.)(개정: 2021.4.22.)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시행일: 총장 승인일

마침

[주요 의견]

○ 염한웅 의장이 학칙에서는 목록을 삭제하더라도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폐지 시 대학평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참석 평의원들이 이에 동의함.

○ 이에 송민석 기획처장이 향후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신설·폐지 시 대학평의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제1호 보고 안건: 2025학년도 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 손익락 재무회계팀장의 '2025학년도 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주요 의견]

○ 염한웅 의장이 기부 및 국고보조금(전년 대비 증가), 고정자산 투자(예산 대비 집행액 감소) 등 예산과 실제 지출이 100억 원 이상 달라진 항목에 대해 세부 내역 자료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재무회계팀장은 서면(이메일)으로 별도 보고하기로 함.

○ 전년 대비 보조금 증가와 관련하여 경북 RISE센터 보조금과 포항시 첨단제조혁신 보조금이 주요 증가 요인임을 설명함. 다만 동 보조금이 한시적 증가분인지 지속적 재원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함.

○ 안희철 평의원이 고정자산 투자의 예산 대비 결손의 세부 구성 내역을 요청함. 재무회계팀은 생명과학과 화재 복구 및 교육지구 설계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축소되었음을 설명하고, 세부 내역을 별도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함.

○ 이성재 평의원의 등록금 수입 관련 질의에 대해, 자금계산서상 등록금 수입과 등록금 회계상 수입의 차이는 단기 수강료, 청강료, 인공지능연구원 수입 등 비등록금 회계 항목이 포함된 데 기인함을 설명함.

○ 염한웅 의장이 앞으로의 안건 상정 시에는 반드시 소관 부서의 처장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팀장이 보고할 경우 처장이 같이 배석할 것을 당부함.

○ 염한웅 의장이 차기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전략예산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5년 사업별 예·실 분석 결과(요약본)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주요 의견]

○ 황병숙 기획팀장이 해당 명칭 변경안 시행일이 2026학년도 2학기부이고, 5월 26일부터 무은재 학부 학생들의 학과 선택 기간임을 고려하여, 5월 11일 교무위원회 심의 이후, 5월 26일 이전에 학과명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사전 보고 및 의견개진을 먼저 진행하고, 오는 5월 12일 차기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서면결의로 심의할 계획임을 설명함.

○ 이성재 평의원이 대학원 총학생회 의장으로서 IT융합공학과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대변함.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학생이 다수이며(단, ① 기존 학위기·증명서의 IT융합공학과 명칭 유지 등 소급 적용 배제, ② IT융합공학 트랙 학생에 대한 인건비·연구비·교과목 등에서의 차별 없는 지원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세계적으로 유망한 의공학 분야 학과가 본 대학에 신설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소수의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의공학'이라는 명칭이 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연구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을 같이 전달함.

○ 염한웅 의장이 과거 창의IT융합공학과는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운영되었던 학과였으며, 당시 교수평의회에서도 사업 종료 후 정리를 전제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정리되지 못한 경위가 있음을 지적함. 이에 IT융합공학과가 의공학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정 사업(NRL 2.0 등)의 존속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대학의 중요 학사 단위로 운영될 것을 당부함.

○ 이에 대해 이종봉 교무처장은 NRL 2.0 사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이미 본부 차원에서 의공학 분야 육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사회에서도 창의IT융합공학과에서 IT융합공학과로 변경된 이후 학과 존속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함.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의 리더십 아래 대학 차원에서 의공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과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염한웅 의장이 학과 내 비(非)의공학 전공 교원의 잔류 문제 및 '의공학 트랙'과 'IT융합공학 트랙'의 이원적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함. 이에 김철홍 학과장은 교원의 이동 여부는 개별 의사결정 사안이며 현재는 모든 교원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트랙 운영은 학과 내부의 교육·연구 다양성 유지 차원임을 설명함.

○ 윤준하 평의원이 학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 역시 대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IT융합공학과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학과명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며,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가 있음을 전달함. 본 사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다종다양한바, 예를 들어 25학년도 및 26학년도 입학생은 IT융합공학과 존재를 전제로 입학하였으므로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의견 표명의 기회 없이 복학 후 학과명 변경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지적함. 학부 학생 사회 내에서는 학과명 변경을 둘러싼 혼란으로 인해 향후 학과 선택에서 IT융합공학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재학생의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함께 전달함. 이에 차기 대학평의위원회는 서면결의가 아닌 대면회의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염한웅 의장은 학부 총학생회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필요시 차기 대학평의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전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5월 12일 이전 학과 차원의 학생 간담회 및 교학부총장·총장과의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함.

○ 염한웅 의장이 학생들의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대학의 발전 방향에 따라 결국 학과명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논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후대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학생 사회에서 문서화하여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

○ 김철홍 학과장이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학번, 휴학 여부, 전공 트랙 등)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다양하므로, 학교 측에서 일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 측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화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염한웅 의장이 대학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함을 당부하며, 향후 학과명 변경을 위해 거칠 교수평의회 및 대학원위원회, 교

